

공·사보험
정책협의체

2019.12.11.(수) 17:00
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

모 두 말 씀

2019. 12. 11.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
손 병 두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□ 안녕하십니까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.

- 우선, 바쁘신 와중에도 공·사보험 정책협의체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민영 보험상품으로서, '19.6월말 기준 약 3,800만명의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입니다.

□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복지부와의 협력 하에 다양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.

-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담율을 상향 조정해 왔으며,
 - 과잉진료 우려가 큰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낮춘 新실손의료보험을 '17.4월 출시하였습니다.
- 작년에는 공·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요인으로 반영했습니다.

□ 그러나,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.

- 우선,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일부 소비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
 - 이러한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, “손해율 상승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”의 악순환이 심화되어,
 - 결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게 받아들여야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.

○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도 지속 제기되는 문제입니다.

-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이지만,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,
-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,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입니다.

□ 이에 금융위는 '20년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○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,

-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·할증제 도입,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·의료계·보험업계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,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습니다.
-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·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,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-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,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해나가겠습니다.

○ 청구 간소화의 경우, 현재 국회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-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, 同 법안에 대해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
-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,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, 비급여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.

-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,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이러한 측면에서, 복지부 차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,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.

□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그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,

- 앞서 말씀드린 실손보험 구조 개편, 비급여 관리 강화도 공·사 보험 정책협의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.
- 오늘 논의하는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